

### 남성해운 ...

#### 선박 안전관리 최우수 영예

남성해운(대표이사 김영치)의 소속선박 'CARINA STAR' 호가 최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해 안전관리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균)은 9월24일 남성해운의 컨테이너선 'CARINA STAR' 호를 안전관리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 본선 선상에서 시상식을 갖고 포상을 실시했다.

시상식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본선을 방문하여 선장에게 직접 수여하였으며 터미널 관계자, 선사 임직원, KR 지부장등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행사로 시행되었다.

금번의 국내선사에서 관리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한 우수선박 포상제도의 확대와 인센티브제 시행은 많은 국내선사들과 운항자들에게 규제일변도로만 생각되어 온 항만국통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다주고, 자율적 안전관리 의식의 함양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동영해운 ...

#### 한-일 투입선박 대체

동영해운(대표 서명천)은 현재 일본 MAIN PORT에 투입중인 'SKY BRIGHT' 호를 9월10일 출항부터 'CARINA STAR' 호로 대체 투입했다.

일본의 주요기항지는 TOKYO, YOKOHAMA, NAGOYA, SHIMIZU, WAKAYAMA이다.

동사는 또 중국 대련PORT에 투입중인 'CARINA STAR' 호가 한-일항로로 배선됨에 따라 9월11일

출항부터 이 항로에 'LUNA STAR' 를 대체 투입했다.

### 썬브라운티그룹 ...

#### 임 회장, 中 조장시 경제고문 위촉

썬브라운티그룹 임병석 회장이 중국 산둥성 조장시로부터 경제고문에 위촉됐다.

임 회장은 지난 9월19일 중국 산둥성 조장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류 위상 시장으로부터 경제고문에 위촉됐으며, 향후 조장시의 경제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임 회장은 9월18-20일 산둥성 조장시등을 방문하고 썬브라운티그룹과의 상호 경제협력방안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중국 산둥성 조장시는 산둥성 4번째로 설립된 직할도시로 선반가공, 화공, 패션 등이 발달한 공업도시이다. 위치는 북경, 상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휘성, 하남성, 강소성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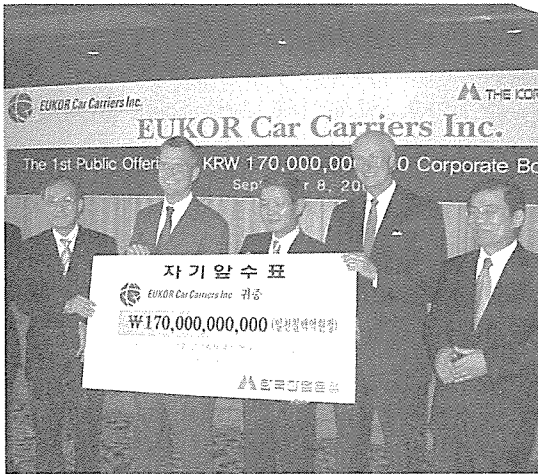
특히 썬브라운티그룹의 계열사인 황해웨리(주)가 카페리선을 운항하고 있는 산둥성 일조시와 근접해 있어 향후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를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유코카캐리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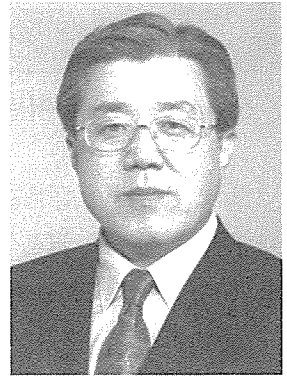
#### 회사채 1700억원 발행

산업은행은 9월8일 1700억원 규모의 유코카캐리어스의 공모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주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유코카캐리어스의 공모 회사채는 만기 5년, 발행금리 4.95%로 상당히 양호한



박 사장은 이어 임  
직원들에게도 “신념과  
행동으로 세계적인 초  
우량 기업 한진해운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  
했다.



한진해운 박정원 사장

신임 박정원 사장  
(President & CEO)은  
한양공대 출신에 해운  
경력 32년의 국제 영  
업 베테랑으로 영업 총괄 부사장으로 재임해 왔다.

조건이라고 산은은 설명했다.

산은은 유코카캐리어스가 조달한 자금으로 해  
외부채를 조기상환할 계획이라며, 차입금의 조달  
코스트가 크게 절감돼 재무안정성 및 재무구조개  
선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박병호 자본시장실장은 “지금까지 국내채  
권시장에서는 신용등급 A인 회사가 최초로 회사  
채를 발행하면서 비교적 장기인 5년의 공모회사  
채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며 “신  
용등급이 A인 유코카캐리어스가 대규모의 회사  
채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동사가 시장에서 높  
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진해운

### 박정원 신임사장 공식 취임

한진해운 박정원 영업담당 부사장이 1일부로 대  
표이사 사장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박정원 사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그간 최원  
표 사장께서 수행해오던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끼  
며 어깨가 무겁지만 열정을 받쳐 한진해운이 세계적  
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박정원(朴政遠) 사장 프로필 ]

▲생년월일 : 1945년 7월 1일생 (만 58세)

▲출생 : 서울 동대문구

▲학력 : 1963년 중동고 졸업

1968년 한양대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군경력 : ROTC 중위 전역 (1970년 6월 30일)

▲경력

1972년 1월 1일 한진해운 입사

1981년~1987년 Los Angeles 지점 주재원

1991년 3월 한진해운 롱비치 지점장

1993년 11월 뉴욕지점장

1999년 1월 상무, 컨테이너선 마케팅 담당 임원

2001년 2월 전무, 컨테이너선 영업담당

2004년 1월 부사장 승진

한진해운 영업본부장(컨테이너 및 벌크부문 총괄)

및 거양해운 대표이사

2004년 10월 한진해운 대표이사

## 현대상선

### 새해달력, 세계 어린이와 함께

“물고기와 새가 합쳐진 상상의 동물이 컨테이너선을 끌고 가고, 거북선 모형의 선박이 형형색색의 바다를 가른다.”

현대상선(hmm21.com)의 국내외 임직원 자녀들이 상상하는 미래의 바다와 선박의 모습이다.

이처럼 현대상선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각국의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바다와 선박, 항구 등을 주제로 하는 이색 그림 공모전을 펼쳐 화제다.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상상력이 반영된 그림으로 회사 달력을 제작하자는 취지였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등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국내 육해상 직원 자녀들은 물론 미주, 구주, 아주 등 전세계 임직원 자녀들의 그림 200여점이 응모됐다.

현대상선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엄정한 심사를 한 결과, 대상은 태양과 바다, 지구의 만남을 인상적으로 표현한 중국본부 그레이스 첸(Grace Chen)과장의 딸인 쥘인(ZHU YIN, 8세)



양이 차지해 상패와 함께 5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게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쥘인 양은 『원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아빠 회사에서 상까지 받아 너무 기분이 좋다. 앞으로도 멋진 바다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그밖에 금상 1명에 30만원, 은상 6명에겐 20만원, 동상 9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과 상패가 각각 주어지며, 응모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해운회사에 근무하는 부모님들의 영향 때문인지 바다와 선박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는 어린이들의 표현력이 워낙 참신하고 기발해 수상작 선정에 애를 먹었다.』는게 현대상선 측 설명이다.

현대상선은 수상작들을 새해 달력의 비주얼로 활용하는 달력 제작에 착수했으며, 공모전에 출품된 그림들은 앞으로도 광고안, 카드, 사보 표지 등 각종 홍보제작물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작들을 회사 사보에 소개하고, 각국의 임직원들이 쉽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10월 중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전시회’도 가질 방침이다.

현대상선은 이번 그림 공모전을 통해 새해 달력 제작을 10월중 조기 완료해 전세계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등 마케팅을 지원하고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 흥아해운

### 회사정리절차 종결 신청

흥아해운(회장 이윤재)이 10월7일 부산지방법원 제12 민사부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공시를 통해 흥아해운은 "정리계획안대로 변제 계획의 준비년도인 1985년부터 18차년도인 2003 년도까지 변제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했으며, 1987 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경영과 올해(2004년) 3월 6일 유상증지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확보,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져 향후 회사의 경영정상 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 동북아1호 선박투자회사

### 국내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

동북아1호 선박투자회사는 지난 1월 설립대 해 양수산부 인가를 받고 3월 일반공모를 통해 161 억원을 모집했다. 발행주식은 322만주로 주당 액 면가격은 5,000원이다.

이 회사는 현대상선 30만DWT급 원유운반선에 투자했다.

한국선박운용(주)는 동북아2호 선박투자회사 상 장신청을 낼 계획임에 따라 조만간 두번째 선박 투자회사 상장도 기대된다.

## 한국선급

### 10월7일 기술세미나 개최

한국선급(회장 이갑숙)은 10월 7일(목) 부산 중 양동에 위치한 한진해운빌딩 3층 대교육장에서 해 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전과 오후세션으로 나뉘어 진 행되는 가운데, 오전세션에는 국제선급연합회 (IACS)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중선체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관한 IACS의 공통규칙 개발동향

과 최근 개발 완료된 '국제협약전산화 프로그램, 즉 KR-CON 4차 버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오후에는 SHELL사 등 정유사들이 독자적으로 시행중인 '선박검사보고시스템(SIRE)에 대한 경 향분석 및 검사방법 그리고 SIRE 실적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기술세미나의 주제와 발표자는 △IACS Common Structure Rule 개발동향(한국선급 기 술연구소 하태범 박사) △KR-CON 4차 버전 설 명회(한국선급 협약업무팀 석지훈 검사원) △한 국선급과의 대화 (한국선급 기획홍보팀 조남수 팀장) △KR 등록선 SIRE Report 경향분석(한국 선급 ISM/ISPS 인증팀 나종신 팀장) △오일메이 저 검사방법(Northeast Marine Services 김일권 Inspector) △SIRE 실적개선 방안 도출(한국선 급 김태우 전문위원) 등이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세방기업과 광양항투자 양해각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세방기업은 10월5일 전남 광양시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광양항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각서에서 세방기업은 올해 말까지 외국 물류기 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3만평 안팎의 광양 항 항만관련부지를 최장 50년간 임대 받아 물품 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포장, 가공과 조립사 업 등에 나서기로 했다.

컨부두공단은 관련부지 임대와 시설물 설치 등 에 대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 원키로 했다. 컨부두공단과 세방기업은 이와함께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구 성해 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